

buddhanews.com

너 나가 없이 하나로 초월해서 돌아가기에 하나님!

25면에서 계속

인(人)이 그대로 다 죽었으니 자기는 살아날 기망이, 새싹이 또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문이 좀 열린다 이 소리죠, 그게.

그걸 왜 부모에다 들이대고 뭐가 안돼도 조상의 탓, 뭐든 조상의 탓으로 자꾸 돌리세요? 자기 조상의 탓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은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의 모습으로 화해서 보여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시도 꿈이고 꿈도 생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것도 꿈이요, 꿈에 가르치는 것도 꿈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다 생시다 할 거 없애 그런 꿈이 꾸어지면 제사 지낼 걱정 하지 말고요, '아하! 이게 나의 책적이로구나. 아, 이거 문이 좀... 이제 두 분 다, 자기와 자기가 다 죽었으니까, 둘 아니면 죽었으니까 문이 좀 열리게 되나 보다.' 하고, '아휴!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제가 늘 공부에 진전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뭔가 조금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스님 누구냐가 다 먹고살기 위해서 애쓰겠어요. 그런데 택이 교수 자리가 나지 않아서 참 힘들다고 그랬죠? 그거를 더떡 부처님께서 해 줘야 해요. 택이 지금 셋은이라도 떠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겠냐.

질문자(2남) 네. 그간에 제가 해 왔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아상과 아만이 너무나 가득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강릉지원 병형제들이 다시 한 번 각자 공부를 다지기 위해서 '재건회'라는 이름으로 만났었는데 그때 우리 병형제의 어떤 분이 제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 빗대어서,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니,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엄청난 아상이었으며 그거를 내려놓고 죽어가고 하는 작업을 이따까지 했지만 아직도 스스로 봐도, 어떤 때는 너무나 팔뚝 같은 게 올라와서 감정을 주체 못한다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꽤 여러 해를 다니면서도 만날 이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아주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오는 게 기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스님 하여튼 사람마다요,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극치적으로 그냥 안달부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모두, 좀 너그럽게 하시고요. 인생이 한 철이예요. 한 철! 우리가 인생 한 철을 그냥 아주 급급하게 살죠. 살얼음판을 걸어 가는 것과 같이, 또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은 것과 같이 사는데, 그렇게 급급하게 살지 마시고 망망대해에 가다가 빠져 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든,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이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몽땅 그냥 맡기고 편리하게 놓으세요, 그냥.

그저 라면 한 그릇 먹으나 밥 한 그릇을 먹으나 하루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그래요, 밥을 한 그릇 떠다 주나 놓은밥을 한 그릇 갖다 주나 나 먹기는 똑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별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해 먹자, 더 좀 맛있는 거 해 먹자 이라는 마음이 파란을 일으켜요. 그냥 생기면 생긴 대로,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대로, 또 가만 가는 것 잡지도 말고 오는 것 막지도 말고, 생긴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물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만물만생이 다 물속에서 살아도 다 그저 집이 돼 주면서 끝없

이파리 하나도 뿌리에 달려 있지 않은 게 없으니

이 유유하게 흘러가는 나를 보고 살아가. 나같이만 살면 뭐가 걱정이나?' 하죠. 산은 산대로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요, 묵묵히. 그러다 뭐가 걱정이에요. 한 철 날 놔의 거. 한 철 동안 공부하시는 게 세세생생으로 돌아가고, 세세생생에 돌아가는 그 자리의 권한으로 가진 위의 조상들도 다 건질 수가 있고 아래의 자식들도 다 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질문자에게) 편안히 앉으세요. 다리 아프실 텐데, 누가 뭐 다리 안 아프게 해 줄 사람 있어요?

질문자(3남) 저는 전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 선원에 온 지가 한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언제 부턴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여기 와서 삼귀의나 정법가, 산회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옆에 처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은 엄숙한 자세로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저만 그렇게 흐느끼고 울 수도 없어서 곤란한데, 눈물 흘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어서 말합니다.

권스님 네. 전자에 이런 공부 좀 하신 거죠. 누구냐가 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전자에, 택의 몸을 가지고 나오기 이전에 말합니다. 그거를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그 이치를 들으니깐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던 생각이 나고, 그러

서 당시 자체는 몰라도 자기 주인공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면서는 속으로는 흥겹고 흐느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택에서 지금 찾고 있는 그 장면이요.

'죽으면 우리가 뭐 아냐?' 이러지마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오고, 그 차원에 따라서 사람을 모두 다스리고 부리기도 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해서 나오는 대통령도 있지만, 부모들이 아주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부모의 정성으로 자식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와 모든 것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만 또 뭐가 길죠. 그렇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뭐가 짧아요. 그냥 끊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도리를 알아서 그저 못사나 잘사나, 먹으나 못 먹으나 주인공에 보아야죠. 이파리 하나도 뿌리에 달려 있지 않은 게 없듯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 마음, 그 뿌리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주어진 거니까 그 주어진 데다가 도로 인력을 하면 그 인력된 자체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감개무량해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그대, 그저 울어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우세요. 허허허... (대중 웃음) 우는 건 택에서 우는 게 아니라 눈만 빌려 주고 마음만 빌려 줬을 뿐이예요.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권스님 그리고요, 한마디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든 간에, 외국에 가 봐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막히면 경전을 찾더군요. 나 그런 거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수많은 선지식들이 고생을 해 가면서 그렇게 불법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경전이라는 거를 내서, 우리들이 그대도 그 껍데기나만 보고 마음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한 지구 안에서 살면서 네 종교, 내 종교 따지고는 있지만, 한 지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 하더라도 차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따로따로 모두 있듯이, 동서남북이 따로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밖으로 찾기는 하지만 내일 살 걱정 안 하고 그냥 한테 모으는 마음은 있거든요. 타의에서 구하지만 하나님으로 한테 모으는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모은 마음, 한울님, 하나님, 하늘님 이런 것이 다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비롯하고, 주님이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냐? 한 생명이 전부 같이 모여서 사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의식들을 다스리는 주체가 나로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붙여서 주인이라고 했을 뿐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건 너 나가 없이 전부

하나로 초월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바깥에서 찾기는 해도 그래도 하나로 뭉쳐 놓고 찾지 않습니까? 우리 뭘이냐? 부처, 칠성, 산신 할 것 없이 쪽 늘어놓고는 온통 그냥 따로따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탄압을 받으면서도 공부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한다고 하는데요. 난 여러분이 옳든 쓰라고 갖다 주는 거 모아서 불교방송국에 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하는데, 우리 불교는 왜 그렇게... 그것이 이익이 남으면 이자를 주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안 견디서 애를 쓰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한다고 하는데요. 난 여러분이 옳든 쓰라고 갖다 주는 거 모아서 불교방송국에 냈거든요.

그저 못사나 잘사나 먹으나 못 먹으나 주인공에 보아야죠

요, 텔레비전 방송에다. 그런데 아이구, 내가 거기라면 거기 왕초가 해 줘야, 허허허...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 왕초라면 그냥 여러분은 거지의 새끼들이죠. 허허허... 그 새끼들이 다 왕초의 지나온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 대(代)에 해결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어렵다는 것이 어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심사일반으로 그거를 좀 사 주면, 뭐 사 준다고 해야 돼요? 팔아 준다고 해야 되냐? (대중에서 '주식'이라고 말을 함) 주식을, 음! 주식을 좀 신청하면 그네들이 좀 덜 힘들 텐데, 불교방송국의 그 원장 스님인가? 아, 그분이 내게 그러는 거예요. 불자들이 주식을 신청하라는데도 이렇게 이리나 저거를 어렵하면 좋으냐고요. 한탄을 하세요.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굶고 그럴 때 요만한 항아리예다가 쌀 한 움큼씩, 조금 덜 먹고는 한 움큼씩 도왔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좀 하고, 좀더 여유가 돌아가는 집은 '거기다가 그냥 예금해 놔야겠다.' 이런 그냥 거기다 한 구좌 예금해 두었다면 아무 때라도 찾는 건 찾는 거니까요. 잘 되면 찾는 거니까, 우리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찾지 않겠습니까? 한 3년만 지나면. 그러나 그저 학자금 넣은 셈만 치고 모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렵합니까? 이익하고 이익지

않고 그걸 떠나서 한도량에서 한도량에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요만한 데다가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원에서 지원 스님네들이 "스님, 맛있는 거 사 잡주세요." 그래도 거기 넣고 또, "어디 가실 때 옳든 하세요." 그래도 거기 넣고, 뭐 치과에 가는 데도 돈 내는 거 있으면 난 주지한테 열어 쓰고, 요거는 또 요렇게 넣고, 허허허... 그렇게 알뜰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쓰고 저런 데도 쓰고, 때로는 참 어려운 집 애들이... 내가 불교방송국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돈을 못 내서 이제 휴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그저 모아 놔던 거 툭 털어서 주곤 하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스님, 나날 돈도 없어서, 삼천만 원 가지고 세를 들었는데 천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 글썽, 줄여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천만 원은 있어야 할 텐데 이 애들하고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나도 입을 꼭 다물고 한참 있습니다. 펼쳐 봐도 뭐 아무 데도 도와줄 데가 없는 사람, 내가 봐서, 그거 어렵합니까?

또 때로는 시집 못 보낸다고 그럴 때는 "애, 나 옳든 좀 쓰게 다오." 지원스님네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선 몰래 그냥 주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주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편안하자고 그러는 거지 남을 도와 주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정말입니다. 아, 우리 사무장님이 아시다시피, 어쩌다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불교방송국에서, 어머니는 편찮아서 드러 놓고 학비를 못 내서 신문팔이를 하는데 대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뭐 어찌고 어찌고 하고 방송하는 것을 보면 아휴! 그게 남의 말 같지가 않습다. 그래서 "단박 연락해라, 대학교 마칠 때까지 우리가 준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는 다 못 해도 그것은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편안하려면,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있지만, 이번에 뭐 군대에 갔다면서요? 허허허...

하여튼 여러분도 심사일반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 보세요. 내 몸뚱이도 한 철 나면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고 또 나를 텐데, 뭘 그렇게 아끼면서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기도 굶으면서 다 주라는 게 아니예요. 절대로 빚져 가면서 시주하지 말고, 빚 얻어다가 시주하지 말고, 빚 얻어다가 뭘 하지 말고, 그저 여유가 없더라도 쌀 한 톨까지 가지고 밥을 지을 거를 한 움큼 털어서 하려면 해라 이런 거예요. 그 의미를, 뜻을 잘 파악해서 우리, 한마음의 심사일반이 되십시오.

*위 법문은 1996년 2월 4일 법형제법회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출력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편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률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